

[서평]

## 스토아학파의 오이케이오시스 이론

임성철\*

### 1. 오이케이오시스 개념에 대한 기존 연구 관점과 로베르트 비스가 내세운 새로운 해석 관점 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스토아학파의 윤리학의 근간을 이루는 ‘오이케이오시스’(οἰκειωσις, oikeiosis) 개념은 기존 학계의 연구 관점에 따르면 생명체가 자신의 내적인 것과 자신 스스로를 신뢰하고 하나가 되려는 과정이며<sup>1)</sup>, 자기 자신의 목적 설정이나 선택이 아닌 창조적 보편 자연을 통한 인간의 만들어짐을 뜻한다<sup>2)</sup>. 스토아학파에게 덕(arete)은 보편적 자연이 올바른 이성과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 가운데 인간은 우주에서 우주적 자연의 자기 보존과 자기 형성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다<sup>3)</sup>.

로베르트 비스(Robert Bees)<sup>4)</sup>는 스토아학파의 핵심 개념인 오이케이오

---

\* 경기대학교

- 1) M. Forschner, Über das Glück des Menschen, Darmstadt 1993, p. 51.
- 2) M. Forschner, Die stoische Ethik. Über den Zusammenhang von Natur-, Sprach- und Moralphilosophie im altstoischen System, Stuttgart 1981, Darmstadt <sup>2</sup>1995.
- 3) Ch.-U. Lee, Oikeiosis. Stoische Ethik in naturphilosophischer Perspektive, Alber-Reihe Thesen Bd. 21, Freiburg/München 2002 (Dissertation, Erlangen/Nürnberg 1999), 39. 참조 이창우, 「스토아철학에 있어서 자기지각과 자기애」, 『철학사상』 17권,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3, 215-243쪽; 이창우, 「행복, 욕구 그리고 자아 - 헬레니즘 철학의 이해」, 『철학연구』 62집, 철학연구회, 2003, 57-74쪽.

	저술 제목	서지 정보
(I)	<p><b>Die Oikeiosislehre der Stoa.</b>  <b>I. Rekonstruktion ihres Inhaltes</b>  <b>(『스토아의 오이케이오시스 이론』:</b>  <b>I. 이 내용의 복원)</b></p>	<p>Epistemata, Würzburger                      Wissenschaftliche Schriften.                      Reihe Philosophie, Bd. 258,                      Würzburg: Königshausen &amp;                      Neumann 2004(총 396쪽)                      [ISBN 978-3-8260-1700-1]</p>
(II)	<p>Die Oikeiosislehre der Stoa.                      II. Ihre Stellung in der                      griechischen Philosophie                      (『스토아의 오이케이오시스 이론:                      II. 희랍 철학에서 이 이론의 위상』)</p>	<p>현재 집필 중</p>

4) “로베르트 비스는 뷔르츠부르크(Würzburg) 대학에서 고대 희랍어, 라틴어 그리고 역사를 전공했고(1982-1999), 동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1992), 그 후에 튀빙엔(Tübingen) 대학에서 교수자격시험에 통과했다(2002). 비스는 뷔르츠부르크 대학 고전 언어학과에서 1992년부터 1999년까지, 그리고 튀빙엔 대학 고전 언어학과에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사강사로 근무했다. 그리고 그는 훔볼트 재단의 장학금으로 Università degli Studi di Pisa에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시간 강사로 일했다. 2004년 8월 1일 이후, 그는 튀빙엔 대학교 고전 언어학과에서 Fritz Thyssen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사강사로 재직하고 있다 [robert.bees@uni-tuebingen.de]. 그의 연구 분야는 고대 희랍의 드라마와 연극, 역사, 고대 희랍 철학 가운데 스토아학파의 사상이다. 그의 연구 성과로는, *Zur Datierung des Prometheus Desmotes*(Beiträge zur Altertumskunde 38, Stuttgart 1993), *Die Oikeiosislehre der Stoa. I. Rekonstruktion ihres Inhaltes*(Epistemata, Würzburger Wissenschaftliche Schriften. Reihe Philosophie, Bd. 258, Würzburg 2004 = Habilitationsschrift Tübingen 2001)와 *Aischylos. Interpretationen zum Verständnis seiner Theologie*(Zetemata 133, München 2009) 등이 있다. 현재 그는 *Die Oikeiosislehre der Stoa. II. Ihre Stellung in der griechischen Philosophie* 와 *Beiträge zu Poseidonios*, 그리고 *Aristoteles und die Geschichtsschreibung des Hellenismus*를 집필하고 있는 중이다.”[이 내용은 부산대학교 『지중해지역연구』 제18권 제2호(2016년 5월) 125-138쪽에 게재된 필자의 서평 「제논의 폴리테이아」

시스에 관한 자신의 두 권의 저술 가운데 (I) 자신이 2001년에 제출했던 교수자격시험 논문에서 앞서 언급한 연구 견해를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차원에서 스토아학파의 윤리학에서 오이케이오시스는 개인의 발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 우주의 자기 보존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밝힌다<sup>5)</sup>. 그리고 비스는 (II)에서 희랍 철학 전반에서 오이케이오시스 이론의 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비스는 상기 서적 (I)에서 전체 스토아의 윤리학이 내세운 근본적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sup>6)</sup>: “성인의 이성이 행할 수 있는 것은 자연 충동에 동의하는 일이다.”[Was die Vernunft des Erwachsenen zu leisten ist, ist dem Naturtrieb seine Zustimmung zu geben](14쪽) “오이케이오시스는 타고난 메커니즘이다. 이 메커니즘은 [...] 그 정의상 ‘자신의’, 즉 자연에 걸맞는 하나의 (본능적인) 방향돌림으로 작용한다. 스토아적 오이케이오시스는 행위의 [...] 유전자적 프로그래밍화(Programmierung)를 표시한다. 이 프로그래밍화는 [...] 자기 자신 그 자체, 후손 그리고 같은 인간에 대한 사랑의 지침을 제공한다. 오이케이오시스의 세 가지 형태[서평자:

---

125쪽 각주 1번에서 직접 인용한 것임].

- 5) 참조 R. Bees, Kosmische Selbsterhaltung: Soziobiologie und Oikeiosis, in: Prometheus 37, 2011, pp. 23-46.
- 6) R. Bees, Zenons Politeia(Studies on the Interaction of Art, Thought and Power, vol. 4), 2011 Leiden [u. a.]: Brill (2011). 참고로 비스가 본 서평 대상 저술의 후속 연구 작업을 가운데 하나로 작성한 『제논의 폴리테이아』(Zenons Politeia)에서 한스 크리스티안 귄터(Hans-Christian Günther)가 밝힌 머리말에 따르면, 비스는 오이케이오시스 개념을 본성을 통한 인간의 프로그래밍화로 이해하고 이를 기존 학계와는 다른 측면에서 현대적 연구 성과, 즉 ‘사회생물학’과 ‘행동생물학’을 반영해 최초로 논구한다. 여기에 덧붙여 비스는 제논이 본능에 순응하는 삶을 요구한 것으로 그의 정치철학을 간주한다고 귄터는 말한다. 그래서 비스가 행한 제논의 폴리테이아 분석은 유럽 정치 철학사의 기초를 세우는 의미 있는 연구 작업이라고 귄터는 강조한다. 참조. W. Kullmann, Naturgesetz in der Vorstellung der Antike, besonders der Stoa. Eine Begriffsuntersuchung, Philosophie der Antike 30, Stuttgart 2010.

욕구, 공격적 행동, 지성]로 구분할 수 있다. 그 관련성에 따라 이 형태는 이기주의와 이타주의로 나뉜다.”(258쪽) 결국 오이케이오시스의 목적은 우주의 자기 보존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비스는 결론짓는다. 이러한 시각은 완결된 오이케이오시스를 통해 인간을 충동의 이성적이며 영향력 있는 형성자(Gestalter)로 규정하는 막시밀리안 포르쉬너 교수(참조. 각주 1과 2)와 이창우 교수(참조. 각주 3)의 연구 견해에 반(反)하는 해석 관점이라 할 수 있다.

## 2. 비스 저술 (I)의 전체 구성 및 그 세부 내용

비스의 저술 (I)의 전체적 구성을 살펴보면, 이 저술은 모두 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저술의 마지막 부분에는 인용문헌 약어표기(341-366쪽)와 색인(367-369쪽)이 덧붙여 있다.

비스는 자신의 저술 <서론>(9-15쪽)에서 그가 분석한 연구 관련 고전문헌의 주요 맥락을 언급하고 나서, 1930년대의 콘라드 로렌즈(Konrad Lorenz)가 근거지은 ‘행동생물학’(Verhaltensbiologie)과 1975년에 에드워드 윌슨(Edward O. Wilson)이 주창한 소위 ‘사회생물학’(Soziobiologie)을 근간으로 삼아 스토아학파의 오이케이오시스 개념과 두 학문 영역이 주장하는 바의 일치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비스는 오이케이오시스의 주어가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자연’, 즉 본성이라는 것, 그리고 특히 제논에게서 일원론적 시각에서 본능과 이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밝힌다.

1장 <세네카의 『서간문』(書簡文, Epistula moralis) 121>(16-45쪽)에서

---

7) 이하 2의 언급 내용은 비스가 요약한 각 장의 결론을 서평자가 정리한 것임을 밝혀 둔다.

이 서간문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스는 이 서간문을 여러 주제에 대한 내용이 아닌 그 자체로 완결된 그리고 잘 논구된 내용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그는 세네카가 오이케이오시스 이론에 대한 논쟁에 하나의 입장을 관철시키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이어지는 2장 <세네카, 포세이도니오스(Poseidonios, 기원전 135-51년)와 아르케데모스(Archedemos)>(46-74쪽)라는 제목 하에, 비스는 세네카의 『서간문』 121에 나타난 오이케이오시스 개념에 대한 묘사는 전통 스토아학파의 견해라고 언급하며, 이 『서간문』에서 포세이도니오스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3장 <동물과 인간 비교>(75-119쪽)에서 비스는 로마 황제 시대의 스토아학파의 일원들과 그들의 반대자들에게서 ‘자기지각’(Selbstwahrnehmung)에 대한 논쟁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 논쟁이 경험적 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기원전 5세기 혹은 4세기로 소급되며, 이를 포세이도니오스보다 이전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덧붙여 비스는 동물과 인간의 비교가 이들 학파들(플라톤의 아카데미아와 에피쿠로스학파)에게서 모두 중요했고, 경험적 관찰을 근거로 신생아와 동물 새끼의 능력과 갖추(Ausstattung)이 동일했다는 시각이 특징적이었음을 확인한다. 이를 배후 관계로 삼아 비스는 세네카의 『서간문』 121이 학파의 이론들을 넘어서는 가치 있는 논의의 증거이며, 에피쿠로스학파와 아카데미아의 경쟁적인 이론들에 맞서 초기 오이케이오시스의 이론을 방어할 수 있는 전거(典據)로 받아들인다. 비스는 4장 <오이케이오시스와 스토아적 우주론>(120-199쪽)에서는 스토아적 우주론의 본질적 요소들에 대해 포세이도니오스가 내세운 주장은 유지될 수 없다고 언급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키케로의 『신들의 본성에 대하여』(De natura deorum) 2권의 내용은 초기 스토아 신학론(Theologie)의 응집된 요약이며, 연구자들이 포세이도니오스와 연관짓는 후기 스토아학파 인원들, 독소그라피적 전승, 그리고 비철학적 작가들의 설명은 스토아학파의 공통적인 이론을 다시 제공한다. 비스는 이 이론이 분명하게 초기 스토아학파와 관련해 증명될 수 있다고 본다. 창조하는

신적 원리가 물질에 침투한다는 것과 이를 통해 귀결되는 공감(Sympathie)을 비스는 오이케이오시스 개념의 정통 이론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간주하며, 이 개념이 제논의 범신론적 체계 내에 완전하게 그리고 깊숙이 담겨있다고 해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5장 <행위의 유전자적 프로그래밍>(200-338쪽)에서 비스는 오이케이오시스 개념은 자기 인식의 과정이나 도덕적 행위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유전자적 프로그래밍, 즉 신적 편재(遍在, Allnatur)가 인간에게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생명체에 부여한 출생 이전의 성질에 근거한 충동의 작동이라고 밝힌다(338쪽). 비스는 자신의 관점이 현대적 이론인 ‘사회생물학’과 일치한다고 보며, 아울러 ‘행동생물학’과 본질적인 측면에서 동일한 입장을 담고 있다고 언급한다.

비스는 앞서 언급한 1장에서 5장까지의 논구를 6장 <결론>(339-340쪽)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다음과 같이 요약해 정리한다.

(1) 비스는 세네카의 『서간문』 121과 키케로의 『신들의 본성에 대하여』를 근거로 크뤼시포스(Chrysippos, 기원전 276-204년)에게서 확인되는 오이케이오시스의 정통 이론을 다시 복원할 수 있다고 보며, 이를 바탕으로 삼아 다음과 같은 새로운 논제를 언급한다. (a) 오이케이오시스는 인간의 발전에로의 과정이 아닌 동물 혹은 일부 식물의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생득적인 메커니즘이다. (b) 이것의 근거는 생물학, 자연철학적 사변 그리고 자연과학적 관찰뿐만 아니라 우주론이다. 살아있는 우주, 즉 신적 편재에 대한 범신론적 표상의 일부로서 오이케이오시스 개념은 인간이 그 전체의 일부임을 전제로 하며, 그것의 유지는 인간을 우주적으로 정해진 행동양식에 의해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자기보존(Selbsterhaltung), 번식, 그리고 타인에 대한 관심은 ‘생물학적으로’ 그 동기를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현대적 논의인 행동생물학의 이론과도 부합한다. 그리고 특히 우주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그리고 행위의 정보를 담고 있는 ‘스페르마티코이 로고이’(spermatikoi logoi)라는

스토아학파의 이론은 의지와 무관하게 유전자를 통한 인간의 조정을 주장하는 사회생물학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c) 그래서 오이케이오시스 개념이 그 기반을 이루고 지속적인 연관성으로 작용하는 스토아 윤리학은 이성의 윤리학이 아니다<sup>8)</sup>. 즉 “충동이 이성적이지 않은 아이의 삶을 규정하는 것과 같이, 충동의 떨어짐이 목적이 아니라 그 충동의 긍정을 스토아 윤리학은 목표로 삼는다<sup>9)</sup>. ‘본성에 따른 삶’은 오이케이오시스를 통해 발생된 충동에 합리적으로(vernunftgemäss)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340쪽)

(2) 포세이도니오스의 우주론은 초기 스토아학파의 사상과 일치하며, 그의 윤리학은 이와 반대로 중요한 점에서 그것과 어긋난다고 비스는 설명한다. 그리고 포세이도니오스가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와 에피쿠로스학파의 철학적 요소들을 사용하면서 하나의 완전히 새로운 오이케이오시스 이론을 만들었다고 비스는 주장한다.

### 3. 비스가 내세운 논점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가?

(a) 비스가 스토아학파의 오이케이오시스 개념에 관한 고대 희랍어와 라틴어 문헌 자료 해석을 위한 역사적 고찰과 언어학적 분석에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나, 그가 자신의 논제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행동생물학과 사회생물학과 연관된 내용은 자신의 문헌 해석을 위해서 행한 ‘발견적’ 차원에서의 도입이라는 점을 서평자는 지적하고 싶다.

(b) 오이케이오시스가 이성에 의해 조정되는 과정이라는 연구 관점은

---

8) 비교. M. Forschner, Die ältere Stoa, in: Friedo Ricken (Hrsg.), Philosophen der Antike, Stuttgart/Berlin/Köln 1996, p. 36: 포르쉬너는 프리도 릭켄의 용어를 빌려 스토아의 윤리학을 “신학적 이성윤리학”(theologische Vernunftethik)으로 부른다.

9) 이 문장은 서평자가 독일어 원문을 의역한 것이다.

후기 스토아의 입장을 ‘이성과 본성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포세이도니오스의 견해에 소급 적용한 결과로 이는 스토아학파의 철학 사상을 이해하는 중심 견해로 자리 잡는다. 이에 반대하는 비스는 오이케이오시스를 ‘격정’(Affekt)의 작용으로 소급해 이해하는 세네카(16-119쪽, 1장-3장)와 키케로(120쪽-258쪽, 4장-5장의 1절)의 문헌을 근거로 삼아 후기 스토아는 포세이도니오스가 아니라, ‘이성과 본능이 일치한다’고 가르친 ‘초기 스토아’에서 그 사상적 근원을 찾아야한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이성이 아닌 본능이 오이케이오시스의 주어가 된다는 것은 비스가 이성과 본능의 관계에 대한 논의보다는 인간 행위의 출발점(특히 ‘스페르마티코이 로고이’에 대한 비스의 설명처럼) 이미 ‘유전자적’ 원인에서 규명하려고 한 것이기에 고전 문헌 자료들에 제시된 이성과 본능의 관계와 상호 영향력에 대한 상이한 견해들을 분석하는데 성공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sup>10)</sup>.

(c) 바로 위 (b)와 관련해 비스 자신도 이성과 본능이 일치한다는 점을 자신의 저술(260쪽 이하, 212쪽, 221쪽, 231쪽)에서 늘 확신하지는 못한다. 비스가 취한 입장은 이성과 본능의 문제를 ‘선택의 자유’(Wahlfreiheit)와 관련해 설명할 때, 이성이 선택의 자유를 갖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우주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성과 본성은 우주의 법칙 하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스의 관점은 중국에는 인간의 완전한 수동성과 모든 행위의 결정론을 그대로 수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스토아학파의 사상은 유지될 수 있는가?

(d) 오이케이오시스의 목적을 인간의 ‘자기관심’으로 이해하는 앙베르크-페더센(Engberg-Pedersen)의 해석 관점<sup>11)</sup>에 서평자는 주목하게 된다.

---

10) 참조 J. Wildberger, 書評: R. Bees, Die Oikeiosislehre der Stoa. I. Rekonstruktion ihres Inhaltes, Würzburg 2004, in: Philosophisches Rundschau 52, 2005, pp. 324-325.

11) T. Engberg-Pedersen, The Stoic Theory of Oikeiosis. Moral Development and

오이케이오시스 개념이 내포한 인간의 수동성을 극복하고, 이성과 본성을 분리하지 않으면서도 이 양자를 ‘자기관심’이라는 개념을 통해 비스의 연구 관점을 비판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 4. 비스 저술의 학술적 가치 및 의의

비스가 제시한 오이케이오시스 개념에 대한 논점은 스토아학파의 연구 경향을 주목할 때 아직 주류에 속하는 연구 견해는 아니지만, 그가 스토아학파의 오이케이오시스 개념에 대한 전승 문헌 자료를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비교 검증하는 과정에서 기존 연구를 새롭게 분류했다는 점에서 그의 연구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야한다고 서평자는 생각한다. 또한 비스가 이제까지 연구자들에게서 소외된 초기 스토아학파의 중요한 문헌을 다시 복원시켰다는 점도 학문적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sup>12)</sup>.

아울러 비스가 스토아학파의 윤리학을 ‘문헌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일에 새로운 방법론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시사 하는 바가 크다. 특히 비스는 자신의 저술을 통해 오이케이오시스를 이성적 과정으로 해석하는 그 동안의 해석 모델을 비판적 안목에서 논구하고, 새로운 ‘이론적 시발점’을 처음으로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연구 성과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비스가 자신의 저술에서 고전 희랍어와 라틴어 문장을 (독일어) 해석 없이 원전 그대로 너무 많은 부분을 인용한 결과,

---

Social Interaction in Early Stoic Philosophy, Aarhus 1990, p. 99: “From start to end the process of oikeiosis should be understood in terms not of good but of belonging.”

12) 하지만 비스가 초기와 후기 스토아의 사상을 분석해 문헌 자료를 정리하는 것에 치중한 나머지, 후기 스토아의 사상이 로마 제정 시대에 수용되어 이것이 하나의 철학적 견해로 자리를 잡은 것의 의미가 엄밀하게 분석되지 못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희랍어와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 독자들이 이 저술을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절감시킨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서평자는 비스가 현재 집필 중에 있는 후속 연구서 (II) Die Oikeiosislehre der Stoa. II. Ihre Stellung in der griechischen Philosophie(『스토아의 오이케이오시스 이론. II. 희랍 철학에서 이 이론의 위상』)에서 자신의 저술 (I)에서 밝힌 논점을 어떠한 방식으로 고대 희랍 철학 가운데 논구할 것인지가 스토아학파의 사상에 흥미를 갖는 일반 독자와 이를 연구하는 전문 연구자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 참고문헌

- 이창우, 「스토아철학에 있어서 자기지각과 자기애」, 『철학사상』 17권,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3, 215-243쪽.
- 이창우, 「행복, 욕구 그리고 자아 - 헬레니즘 철학의 이해」, 『철학연구』 62집, 철학연구회, 2003, 57-74쪽.
- Bees, R., 書評: Ch.-U. Lee: “Oikeiosis. *Stoische Ethik in naturphilosophischer Perspektive* (2002)”, in: *Gnomon* 79, 2007, pp. 18-25.
- \_\_\_\_\_, *Zenons Politeia*(= Studies on the interaction of art, thought and power; 4), 2011 Leiden [u. a.], Brill 2011.
- \_\_\_\_\_, “Kosmische Selbsterhaltung: Soziobiologie und Oikeiosis”, in: *Prometheus* 37, 2011, pp. 23-46.
- Engberg-Pedersen, T., *The Stoic Theory of Oikeiosis. Moral Development and Social Interaction in Early Stoic Philosophy*, Aarhus 1990.
- Forschner, M., “Oikeiosis. Die stoische Theorie der Selbstaneignung”, in: *Stoizismus in der europäischen Philosophie, Literatur, Kunst und Politik*(hrsg. von B. Neumeyr u. a.), Berlin-New York 2008, Bd. 1, pp. 169 - 192.
- \_\_\_\_\_, *Über das Glück des Menschen*, Darmstadt 1993.
- \_\_\_\_\_, *Die stoische Ethik. Über den Zusammenhang von Natur-, Sprach- und Moralphilosophie im altstoischen System*, Stuttgart 1981, Darmstadt 21995.
- \_\_\_\_\_, “Die ältere Stoa”, in: Friedo Ricken (Hrsg.), *Philosophen der Antike*, Stuttgart/Berlin/Köln 1996, pp. 24 - 39.
- Horst, C., 書評: R. Bees, *Die Oikeiosislehre der Stoa. I. Rekonstruktion ihres Inhaltes*, Würzburg 2004, in: *sehpunkte* 5, 2005, Nr. 10 [2005.10.15.], in: <http://www.sehpunkte.de/2005/10/8152.html> [검색

일자: 2016년 4월 13일].

Kullmann, W., *Naturgesetz in der Vorstellung der Antike, besonders der Stoa. Eine Begriffsuntersuchung*, Philosophie der Antike 30, Stuttgart 2010.

Lee, Ch.-U., *Oikeiosis. Stoische Ethik in naturphilosophischer Perspektive*, Alber-Reihe Thesen Bd. 21, Freiburg/München 2002 (Dissertation, Erlangen/Nürnberg 1999).

Wildberger, J., 書評: R. Bees, *Die Oikeiosislehre der Stoa. I. Rekonstruktion ihres Inhaltes*, Würzburg 2004, in: Philosophisches Rundschau 52, 2005, pp. 322-343, in: <https://web.archive.org/web/20141225040854/http://www.ibiblio.org/stoicism/> [검색일자: 2016년 4월 13일].

임성철 E-mail: [sungchul-rhim@hanmail.net](mailto:sungchul-rhim@hanmail.net)

투 고 일	2016년 04월 14일
심 사 일	2016년 04월 27일
게재확정	2016년 05월 11일